2016. 11. 14(수) ~ 11. 19(목)

[북유럽 2개국 : 핀란드, 스웨덴]

- 2016 안성시의회의원 -

국 외 연 수 보 고 서

안 성 시 의 회

이 기 영 의 원

3박5일의 짧은 일정으로 핀린드와 스웨덴일정을 잡고 연수를 떠났다.
배낭연수인 것이다.
핀란드의 경우 한국주재 핀란드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일정을 잡았으나 스웨덴은 1일의 시간밖에 없어 직접 부딪치기로 했다.
그러나 교실없는 혁명으로 유명한 핀란드의 교육의 현장을 보기위해서 노력했으나 일정이 짧아 기관방문은 어려워 헬싱키주제 한국영사관을 찾아 면담하고 직접 핀란드 현지인과 인터뷰를 하였으며, 핀란드 노인복지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소개받은 가정을 방문하였다.

청년실업의 돌파구를 찾고자 가장 먼저
11월 15일 첫 1일차에 스타트업(start up)의 세계 최고인 알토대를 방문하였다.
알토대에서는 한국유학생인 서명지씨를 소개하여 안내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먼저 5년밖에 안된 스타트업이 스탠포드대를 앞지르고 있다는 것에 놀랐으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스타트업 슬러시가 전세계 투자자등 1만명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는 것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창업의 벤처가 축제인 것이다.

알토대는 노키아가 망하면서 남긴 특허로 1000개가 넘는 벤처기업를 만들면서 유명해 졌으며,
슬러시의 영상을 보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으며,
1층에 있는 도서관를 방문하면서 열람실 옆으로 벤처 동아리 룸에
자연스럽게 토의하면서 만들고 실험하는 학생들을 통해 핀란드의 힘을 보게 되었다.

국내에 있는 대학들은 취업을 준비를 하지만
알토대학은 창업의 메카로 세계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알토대학의 고민도 있다.
지구생존, 자율주행, 생활환경등의 테마는 물론
새로운 인류의 먹거리 창출인 것이다.

알토대처럼, 한국의 젊은이, 안성의 청년들이 함께 펼칠 날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인다.

AALTO
VENTURES
PROGRAM
insight · inspiration

A!
Aalto-yliopisto
Aalto-universitetet
Aalto University
Maarintie 8

다음 일정으로 켈라을 방문하였다.
사실 핀란드의 복지는 어떠 하기에 복지천국이라 하는지 매우 궁금하였다.
담당국장은 관련분야 박사로 특히 노인문제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었다.
한국의 경우 보건복지부, 가족여성부등 각 부처로 복지가 나누어지지만 핀란드는 켈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엄마 상자라고 하는 출산패키지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켈라는 4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회보험기관인 켈라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저소득층의 주택보조금지급, 보육비지원, 아동수당과 가족수당, 학생수당,
건강보험 등 핀란드 사회보장 전반을 책임지는 기구다

핀란드 복지의 중요한 내용은
다양성이 존중되고 정직한 노동의 댓가, 그리고 모두가 균등한 삶을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일을 하는 한 가난한 사람은 없으며, 약자에 대한 차별도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등 소외계층이 재생산되는 구조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부의 유무를 떠나 사람답게 사는 사회복지 구조이며
대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고 한다.

아동의 수당도
아이가 하나인 집에는 100유로, 두 번째 아이에게는 110.5유로, 세 번째 아이에게는 141유로, 네 번째 아이에게는 161.5 유로를 제공한다.
한 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추가되고, 다섯 번째 아이를 출산했다면 182유로가 지급된다.
다섯 번째 아이 이후부터는 무조건 182유로가 추가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아동수당은 세금이 면제다

청년들에 대하여
한국에서 10대의 독립이 거의 불가능하다.
20대 독립도 쉽지 않다. 높은 대학등록금과 주거비 때문에 부모에게 기생해서 사는 캥커루족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핀란드의 경우는 다르다.
고등학교 때 독립을 할 경우 학생생활보조금으로 246유로(약 37만원)와

학생주택보조금이 150~200유로(약22만 5천원~31만 5천원) 내외로 지급된다.
대학생은 생활보조금이 298유로(약 44만 7000원)정도로 약간 많다.
핀란드인들은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 정도에 독립을 하는데
학생생활보조금과 주택보조금을 합쳐 400- 450유로(약 60만원~67만 5천원)의 학생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
대학등록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450유로 정도의 학생수당으로 집세를 내고, 나머지 비용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핀란드의 조세부담률은 국민총생산량(GDP)대비 44.5%이지만 우리는 19.3%(2010년 기준)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도 복지를 제공하는 데 밑바탕이 되지만 국가에서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다음은 인구27만의 에스포시 방문이다.
가장 궁금한 것은 핀란드의 정치와 의회구조, 예산의 집행, 그리고 복지 분야 등이다.
에스포시를 방문하면서 먼저 도착한 시장실과 로비, 그리고 사무실과 각종 회의실에서
사진처럼 오픈되고 시민을 배려하기 위하여 회의실마다 방음이 설치되고, 누구나 미팅이 가능하도록 많은 회의 공간과 편리한 시설이
나를 부럽게 하였다.
이어 미팅실에서 에스포시의 정치체계, 예산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질의 응답을 가졌다.
정치체계에 있어서는 핀란드에서는 우리와 같은 지방의회는 있으나, 각종 위원회별로 계획과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예를 들어 아동의 경우 아동전문가들의 커미티(위원회) 참석수당만 받고 심의를 하는 것이다.

가장 관심이 많은 예산의 경우
투명성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안성시의 경우 예산이 확정되면 수많은 설계 변경을 통하여 예산이 증액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는데
핀란드의 경우 처음 계획부터 중간, 그리고 결과까지 모든 과정이 시민들에게 오픈되며,
시민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오픈하기에 부정부패가 없기에 투명성지수가 1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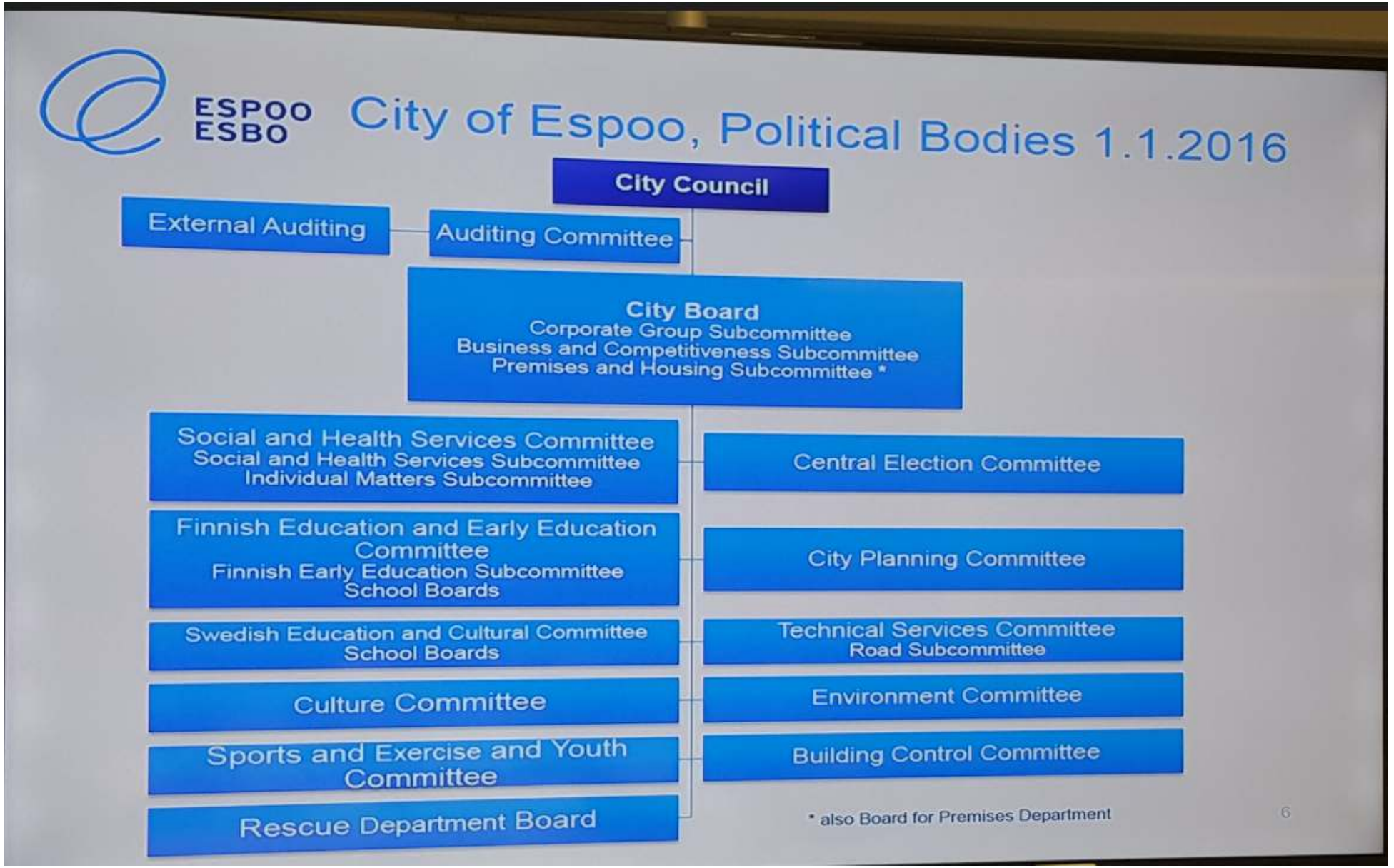
그리고
사회복지의 분야는 예산의 42%로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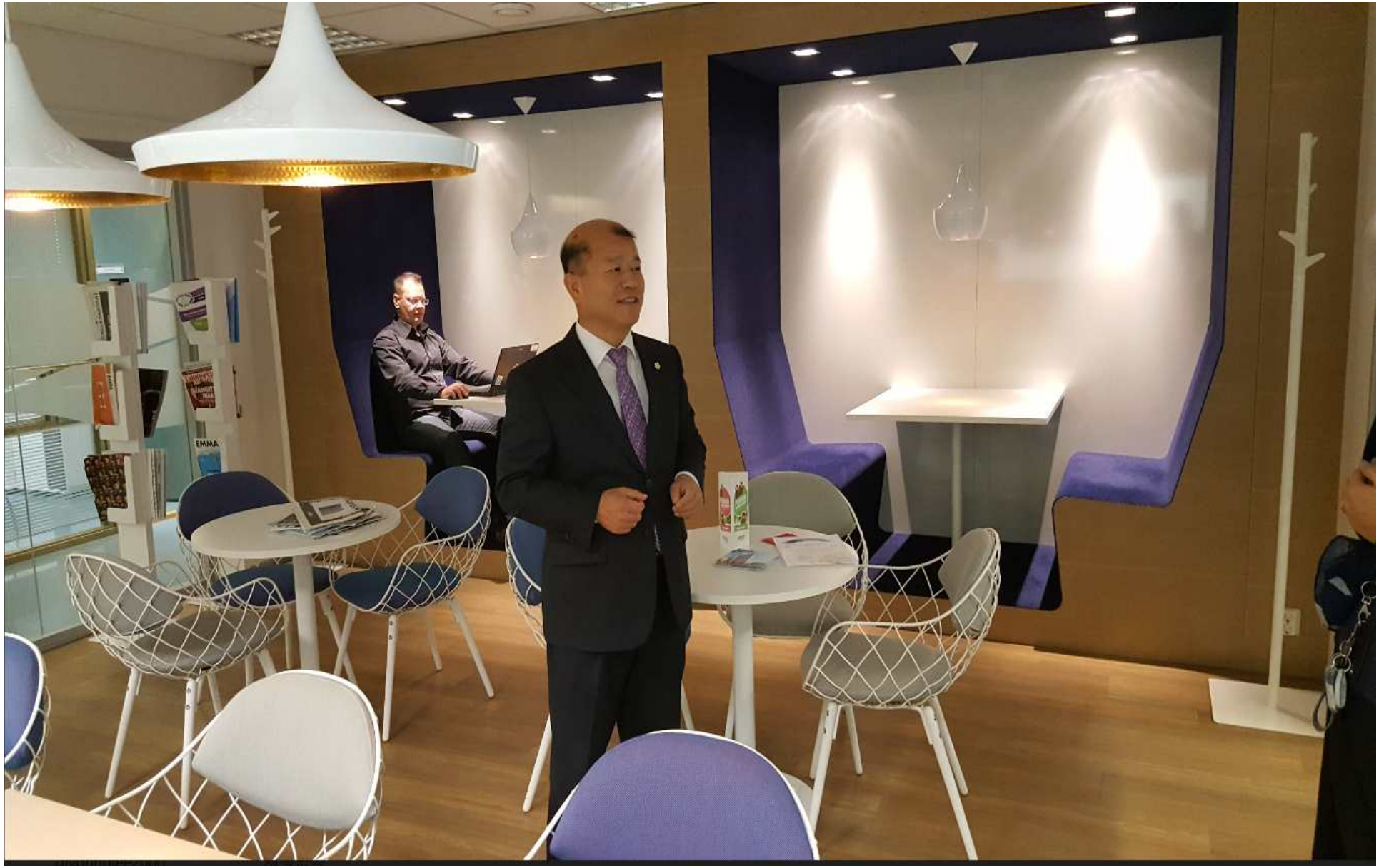
ESPOO
ESBO

The budget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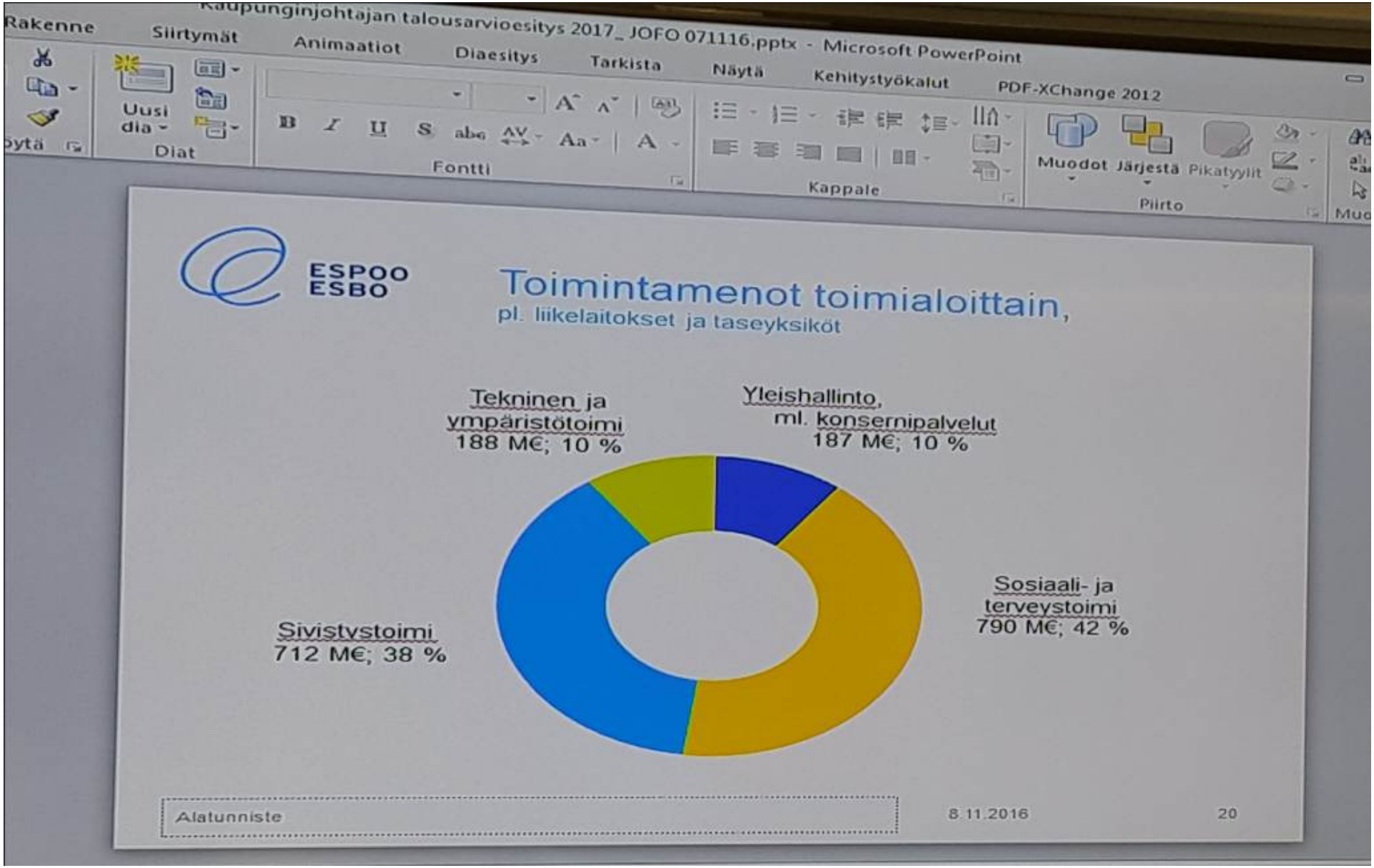
- The council decides on strategy for 4 years
- The council decides the spending framework annually in September. The council's decision includes the strategic results targets and budgeted amounts for each sector denominated in euros.

- The Mayor prepares the budget and investment program (10 years, all projects) proposal, based on suggestions made by committees, available resources and spending evaluation
- The councilmembers send enquiries to particularize the contents of the budget proposal
- the council's negotiating committee negotiate additions and removals to the budget proposal
- The council decides on Espoo strategy and the budget in December.


ESPOO
ESBO
City of Espoo, Political Bodies 1.1.2016
City Council
External Auditing
Auditing Committee
City Board
Corporate Group Subcommittee
Business and Competitiveness Subcommittee
Premises and Housing Subcommittee *
Social and Health Services Committee
Social and Health Services Subcommittee
Individual Matters Subcommittee
Central Election Committee
Finnish Education and Early Education Committee
Finnish Early Education Subcommittee
School Boards
City Planning Committee
Swedish Education and Cultural Committee
School Boards
Technical Services Committee
Road Subcommittee
Culture Committee
Environment Committee
Sports and Exercise and Youth Committee
Building Control Committee
Rescue Department Board
* also Board for Premises Department
6



145
148
146
149
147
150


Kaupunginjohtajan talousarvioesitys 2017_ JOFO 071116.pptx - Microsoft PowerPoint
Rakenne
Siirtymät
Animaatiot
Diaesitys
Tarkista
Näytä
Kehitystyökalut
PDF-XChange 2012
Uusi dia
Diat
Fontti
Kappale
Muodot
Järjestä
Pikatyylit
Piirto
ESPOO
ESBO
Toimintamenot toimialoittain,
pl. liikelaitokset ja taseyksiköt
Tekninen ja ympäristötoimi
188 M€; 10 %
Yleishallinto, ml. konsernipalvelut
187 M€; 10 %
Sivistystoimi
712 M€; 38 %
Sosiaali- ja terveystoimi
790 M€; 42 %
Alatunniste
8.11.2016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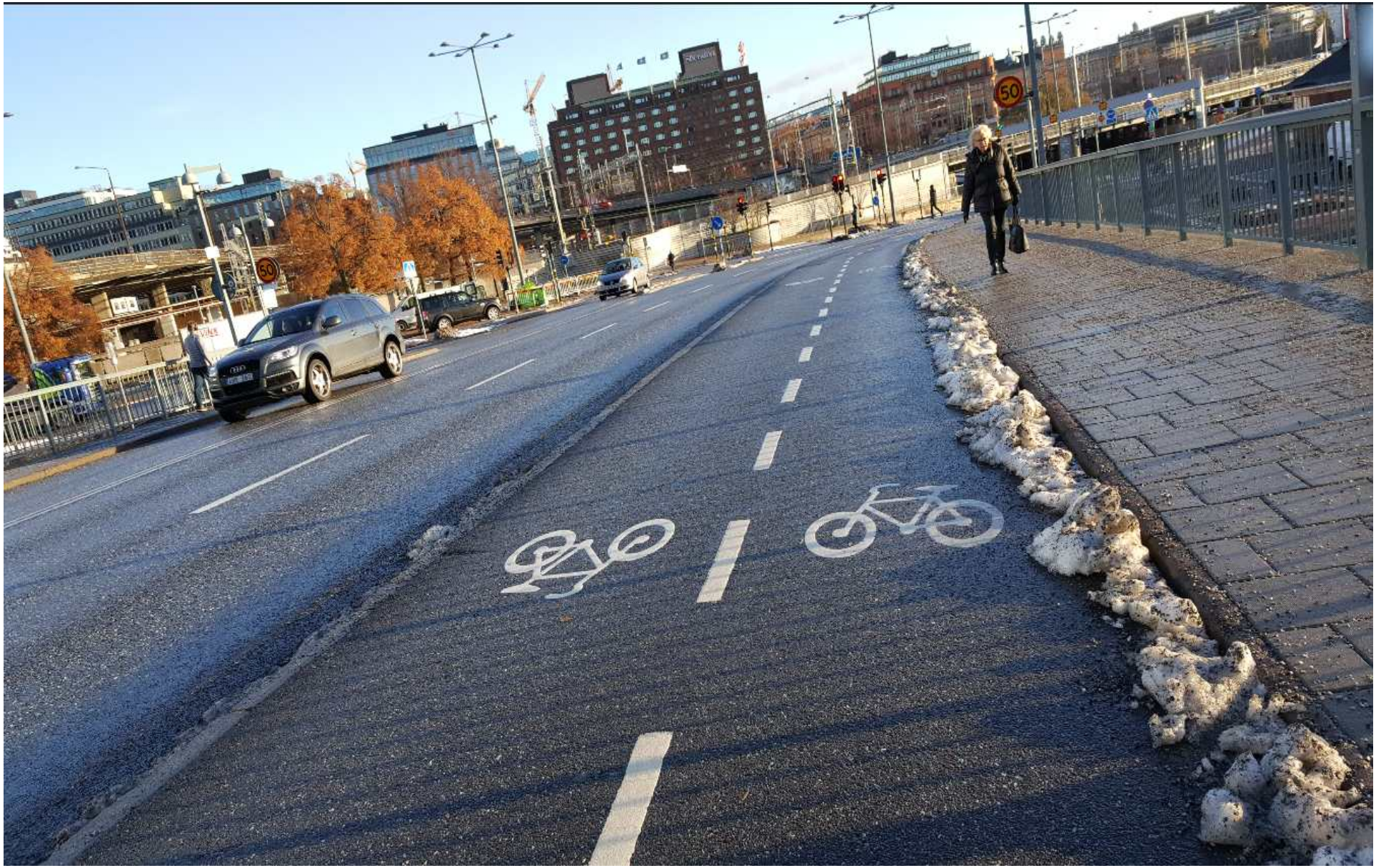
핀란드는 어떻게 영어를 잘할까?
이러한 의문을 품고
교육제도등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현장 인터뷰와 핀란드 대사관을 찾아 영사와 많은 시간을 가졌다.
영사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았다.
아이러니하게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 드라마가 재미없다는 것,
그래서 영어를 잘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나름의 설득력이 있었으며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항상 독립심을 키우고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부러움이었다.

시간의 일정이 빡빡하여 교육기관을 방문하지 목한 것이 아쉽지만 돈을 지불하고
유치원등의 교육기관을 방문하도록 만든 것은
부러움 자체였다.

다음 일정을 위해
스웨덴 스톡홀롬으로 향했다.
스톡홀롬에서 노벨박물관을 방문하여 김대중 대통령님께 예의를 표하고
의사당을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테러 때문에 경비가 상엄하고 사전 예약이 되지 않아
어려워 스톡홀름시청과 세계10대 도서관중의 하나인 스톡홀름도서관을 방문하고자 시내를
걸어서 투어하기로 하였다.

투어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전거 도로였다.
왕복으로 그려진 자전거 도로는 많은 것을 시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착한 스톡홀름시청은
노벨상의 만찬장으로 유명한 곳으로 이 기관을 방문하면서 똑같이 방문대금을 지불하고 입장하여
설명을 들었다,


50
50

LINUS PAULING 1954, 1962
Linus Pauling discovered the structure of the alpha-helix molecule when he folded a piece of paper. Pauling was also a champion of peace, and the artist here was one of his personal attributes.
KIM DAE JUNG 2000
These letters were written by Kim Dae-jung to his wife from prison. She knitted clothing for him to keep him warm.

고풍스런 시청이 관광의 명소가 된다는 것에 더 많은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한참 걸어서 도착한 스톡홀름 도서관은 원형으로 색다른 디자인이 눈길을 끌었으며
수많은 장서의 체계적 관리가 되어 있으나 한국에 관한 책들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기도 했다.
정말 1시간 이상을 걸어서 꼭 도서관을 가고자 했던 것은 안성 아양택지지구에 세워지는
도서관에 대하여 좋은 정보와 디자인 등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물론 동영상도 찍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별반 차이는 없어 보였으나
우리는 도서관에 취업준비생과 시험생으로 가득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짧은 연수를 마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체험하였다.
일정에는 없었지만 유기농 과일, 채소등 유기농법에 대하여 기회가 되면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큰 아쉬움이 있다면 혁신도시인 오울루를 방문하지 못한 것이다.

Stadshus-
shopen
City Hall
Shop
Stockholms
stad